

보도시점 2026. 6. 25.(목) 10:00 배포 2026. 6. 23.(화)

## 올여름 역대 최대전력수요 전망에도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총력

- 폭염 지속과 흐린 날씨가 겹칠 때 역대 최고 전력수요(98.8GW) 발생 가능
- 최대전력수요 98.8GW에도 예비력 8.2GW(공급능력 107GW)로 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6월 25일 오전 한국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열린 ‘전력수급 대책 회의’를 통해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하고, 이날 김성환 장관이 전력 유관기관과 함께 여름철 전력수급 관리 준비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전력 당국은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날이 흐릴 경우 최대전력수요가 98.8GW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역대 최대 전력수요인 2024년의 97GW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전력 공급능력은 전년보다 2GW 증가한 107GW를 확보했으며, 최대전력수요가 98.8GW까지 나타나더라도 예비력은 8.2GW로 전력 당국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력 유관기관과 함께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전력 유관기관은 본격적인 폭염 이전에 취약 설비를 사전에 점검하고, 노후설비를 교체하는 등 설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 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하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정부와 전력기관은 빈틈없는 전력수급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평온한 일상과 기업·산업의 경제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줄 것”을 강조하며, “여름철 발전 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각 기관 대표들이 세심히 살펴달라”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김성환 장관은 이날 회의 직후 한국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의 지하 발전 시설을 방문하여 전력설비 운영 상황을 점검한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홍수 및 침수 대비 시스템을 확인하고 재해·재난에도 설비의 안정적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태세를 살필 예정이다.

한편, 전력 당국은 여름철 늘어가는 전기소비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8월에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여름철 전기요금 감면 한도를 확대(최대 월 2만 원)하고, 전기요금을 미납하더라도 여름철(7~9월)에는 전기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기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1구간) 0~200kWh → 0~300kWh, (2구간) 200~400kWh → 300~450kWh

- 붙임 1.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회의 개요.  
2.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요약.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경택 (044-203-3880)
		담당자	사무관	이민석 (044-203-3886)



## 붙임 1

#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회의」 개요

### □ 회의 개요

- 일 시 : '26.6.25.(木) 10:00~11:30 (90')
- 장 소 : 한국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 (서울 마포구 토정로 56)
- 참석자
  - (정부) (기후부) 장관, 전력산업정책관, (기상청) 기후과학국장 등
  - (유관기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가스공사, 발전5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

### □ 세부 일정

일 시	내 용	비 고
10:00~10:03 (3')	• 모두발언	장관
10:03~10:50 (47')	•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발표	
10:03~10:06 (3')	① 「여름철 기상전망」	기상청
10:06~10:11 (5')	②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기후부
10:11~10:14 (3')	③ 「여름철 LNG 수급전망」	한국가스공사
10:14~10:17 (3')	④ 「발전설비 안정운영 및 현장 안전 관리 계획」	한국남부발전
10:17~10:50 (33')	• 참석자 토론	
10:50~10:55 (5')	• 현장 이동 (회의실→중앙제어실)	
10:55~10:25 (30')	• 발전설비현장 점검(중앙제어실-지하발전소)	
11:25~11:30 (5')	• 환송	

**1. 전력수급 전망**

- **(수요)** 최대전력수요는 8월 3주차 94.1<sup>(기준)</sup>~98.8GW<sup>(상한)</sup> 전망
  - 폭염과 흐린 날씨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98.8GW까지도 가능하며, 이는 역대 최대 전력수요에 해당하는 수준
  - \* 역대 전력피크 실적 : <sup>(1위)</sup>24.8.20일 97.1GW, <sup>(2위)</sup>25.8.25일 96.0GW, <sup>(3위)</sup>25.7.8일 95.7GW
- **(공급능력)** 전년보다 2.0GW 증가한 8월 3주차 107.0GW 확보
- **(예비력)** 기준전망 시 예비력 13.9GW로 안정적, 태풍·폭염으로 상한 전망이 시현되더라도 예비력 8.2GW로 관리 가능한 수준

**2. 전력수급 대책**

- **(설비점검)** 핵심설비 사전점검 및 취약개소 보수·교체 등 예방조치
- **(추가자원)** 예비력 부족시 단계별 예비자원\* 최대 8.8GW 가동
  - \* 신뢰성 수요반응자원 → 전압 하향조정 → 긴급절전 → 발전제약 완화 등
- **(수요관리)** 공공기관의 여름철 에너지 절약 방안\*을 적극 이행하고,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 유도
  - \* 냉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공공기관 그린버튼 활용 자발적 수요관리 등
  - 취약계층이 전기요금을 체납하더라도 여름철(7~9월)에는 전기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류 미제한 등 시행

※ 6.29일~9.18일을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피크발생 가능성이 높은 8주(7.6~8.28일)간 「전력수급 비상대응반\*」 운영  
 \* 기후부-한전-거래소-발전사, 수급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유지